

시대의 아픔·현안, 작품으로 소통

지역공연예술 현장을 찾아서

① 극단 '토박이'

예술과 문학작품은 시대의 표상이다. 공간과 시간을 담아낸 작품들은 감동과 울림으로 시공간을 넘어 시대를 알리고 사람의 존엄을 알린다. 광주전남은 판소리와 남종화,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해내며 한국 인문학의 원형으로 불린다. 현대 들어 한국 문인과 예술인들에게 1980년은 영원한 화두다. 철학자 아도르노가 2차 대전의 참상을 이야기하며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를 논하는 것은 아만'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문학과 예술도 1980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상처의 위무와 예술화, 이를 통한 세계적 공감대를 꿈꿔온 지역 공연예술단체를 만나본다.

편집자 주



요리대회 형식을 빌려 5·18 광주의 '주먹밥' 을 이야기한 작품 '오! 금남식당'. 극단 토박이 제공

임해정 대표 "연중 '오월극' 상설화 최선"
1980년 5월, 예술가로서 풀지 못한 숙제
올해 연극 '마중' 올려... 변하는 사회상 담아

극단 '토박이' 는 시대의 아픔과 사회 현안을 작품화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광주 공연예술의 대표적 단체 중 하나다. 특히 1983년 창단 이후 꾸준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작품화해 매년 광주의 5월을 이야기하고 있다.

토박이는 '오월극' 을 비롯,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대표적 극단 중 하나다. ◆누구나 언제든지 '오월극' 만날 수 있는 환경 조성 "꼭 5월이 아니라도 언제든 누구나 광주에 오면 1980년 5월 광주를 만날 수 있는 공연예술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극단 토박이 임해정(53) 대표는 이같이 자신의 바람을 말했다. 30년 넘게 지역에서 활동한 연극인으로나 극단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로서 열악한 지역 여건을 생각할 때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다. 연극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다 극단을 꾸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임 대표는 뜻이 닿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변하는 시대에 맞춰 사회현안을 작품에 담아내고 연극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연극인의 소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 광주의 5월은 임 대표에 있어 예술가로서 풀지 못한 숙제처럼 남아있는 아픔이다. 5·18을 다른 연극은 그 무게만큼이나 간단한 일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들더라도 당시 현실을 살아온 광주시민들의 눈높이를 넘어선 것이 쉽지 않다. 제작비 조달이 어려워 재능기부는 물론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각출하기도 했다. 1983년 창단 당



극단 토박이 임해정 대표.

극단 토박이 임해정(53) 대표는 이같이 자신의 바람을 말했다. 30년 넘게 지역에서 활동한 연극인으로나 극단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로서 열악한 지역 여건을 생각할 때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다. 연극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다 극단을 꾸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임 대표는 뜻이 닿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광주시 서창 역사·유래 담았다

서구문화원, 인문학총서 제1권 '광주서창' 발간
광주 서창의 역사와 유래 등을 담은 책이 나왔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인문학총서 제1권 '광주서창' 을 최근 발간했다. 책에서는 서창 출신 가운데 유교로 의로움에 몸 바친 인물로 호남사림의 기반을 닦



왼쪽부터 1988년 '금희의 오월' 초연 당시 모습. 오월청소년극 '글러브와스티크그리고 썬버거', '마중'. 극단 토박이 제공

시 '금희의 오월' 이후 매년 5월이면 '모란꽃', '정실홍실' 등 다양한 오월극을 무대에 올렸다. 4-5년 전부터는 자체적으로 상설극 운영에 나섰다. 주간 상영, 주말 상영, 월례 상영 등 점차 횡수와 기간도 늘려왔다. 광주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연중 오월극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오월극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를 대중들과 이야기하는 임 대표의 철학은 그의 연극 인생 첫발을 내디딘 작품에서부터 시작했다. 학생시절 동아리 모임을 보고 전남대 연극반에 들어선 그녀는 압태도 소작쟁의를 다룬 '저라곶의 비가' 라는 작품에 처음 출연했다.

극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일제강점기 농민들의 소작쟁의 등극을 위해 역사공부부터 했다는 게 임 대표의 설명이다. 임 대표는 "극에 앞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현상의 배경이 되는 구조적인 부분의 공부를 철저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질은 작품들로 대중에게 호소하는 작품들을 올렸다"며 "연극과 사회를 습득하며 연극인으로서의 기초를 키워갔던 시기였다."

극단 토박이가 사회적 주제와 1980년 5월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매년 이어지는 5월 이야기 지난해 오월레파티르 네 번째 공연으로 '오! 금남식당' 을 선보인 토박이는 올해 연극 '마중' 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중' 은 5·18 희생자들과 그 후손들의 현실을 담은 연극이다. 이젠 공연의 끝자는 이어가면서도 변화한 시대상을 담은 계획이다. 5·18 행방불명자 아들을 40년 가까이 기다리는 할머니와 과거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손자의 시각 차이를 담

아낸다는 구상이다.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줄지 않은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과 함께 변화한 시대에 따라 5·18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차이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5·18 40주년을 맞는 내년을 장식할 작품은 지난 4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이 후보군에 있다. 임 대표가 가장 뛰어난 연극이라고 자부하는 1988년 초연작, '금희의 오월' 을 비롯해 '모란꽃', '정실홍실' 등 다양한 작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열악한 환경, 떠나는 연극인 아쉬워 지역의 역사적 상흔을 예술작품으로 남기고자하는 열망이 중요하지만 당장 극단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일은 현실이다.

정규단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 임 대표를 빼면 송은정, 박정운, 박정우 등 3명이다. 연극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다양한 문화강사 강의로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물론 정규급에는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연극 꿈나무들이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 대부분 기회를 찾아 서울로 떠난다는 게 임 대표의 설명이다. 임 대표는 "지역 공연예술계, 연극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후배들이 설 곳이 없다는 점이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후배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임 대표는 "연극인이자 자신을 색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공연은 관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을뿐더러 자신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조언했다.

정책을 맡겨 시행한다. 광주 아트플러스 사업은 1, 2호 사업으로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진흥센터와 구 인화학교 부지의 장애 인수시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학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등 지역 건축단체 회장과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 건축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월 지역건축관계자 최종 검토회의를 거쳐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어 역량 있는 책임자가 총괄건축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역건축계의 추천을 받아 이달 말경 총괄건축가를 선정한다. 조덕진기자 mdeung@srb.co.kr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무엇을, 누구를 위한 효율화인가

조덕진의 어떤 스케치

'이제 정당 문제는 고개를 돌리기도 싫다. 법인화의 위험성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전당·아시아문화전당 통합 움직임에 대한 본보기사 '법인화 수순?' 아시아문화전당·문화원 통합 착수 '(7일자 1면)가 나가자 반응이 이어졌다.

원안에서 법인화는 안된다면서도 일원화는 해야하는 것이냐는 의견너머로 일원화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와 문화계 관계자들은 '아시아문화전당도 법인화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 는 우려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구축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양새라는 탄식도 흘러나왔다.

일원화는 사실상 법인화(문화원으로 일원화) 라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문광부의 양 기관 통합 논의는 지난 2015년 개정된 아시아문화전당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올해 양 기관에 대한 조직전담을 거쳐 2020년 4월까지 일원화하도록 돼 있다.

◆핵심은 이 법안의 태생적 한계 혹은 본질에 있다. 본질은 '조성사업 활성화에 위한 법' 이었는지, 지금 아무 의심없이 따르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인지라는 근원적 질문을 함유하고 있다. 지역사회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급하게 전하자면 해당 법안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조성사업에 구축한 악화를 지지하기 위한 마지막노선, 차악으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당초 조성사업은 문화예술로 먹고사는 도시 모델, 지방자치와 한국형 문화도시 모델로 출발했다. 문화전당은 400여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창작자 출신으로. 문화 예술 작품을 전세계로 유통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오죽 용어로 4차 산업의 최전선인 것이다. 그러나 조성사업은 문화전당사업으로 축소됐고 인사와 예산도 축소되며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 불행한 일이지만 정당에 대한 지역사회 불신만 가중시켰다.

◆핵심은 이 법안의 태생적 한계 혹은 본질에 있다. 본질은 '조성사업 활성화에 위한 법' 이었는지, 지금 아무 의심없이 따르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인지라는 근원적 질문을 함유하고 있다. 지역사회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급하게 전하자면 해당 법안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조성사업에 구축한 악화를 지지하기 위한 마지막노선, 차악으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핵심은 이 법안의 태생적 한계 혹은 본질에 있다. 본질은 '조성사업 활성화에 위한 법' 이었는지, 지금 아무 의심없이 따르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인지라는 근원적 질문을 함유하고 있다. 지역사회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급하게 전하자면 해당 법안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조성사업에 구축한 악화를 지지하기 위한 마지막노선, 차악으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핵심은 이 법안의 태생적 한계 혹은 본질에 있다. 본질은 '조성사업 활성화에 위한 법' 이었는지, 지금 아무 의심없이 따르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인지라는 근원적 질문을 함유하고 있다. 지역사회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급하게 전하자면 해당 법안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조성사업에 구축한 악화를 지지하기 위한 마지막노선, 차악으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은퇴 후 나홀로 떠난 북유럽 5개국 여행기
윤길 광주박물관회 이사, '신의 선물, 북유럽' 출간

직접 발로 역사·문화 등 풀어나갔다. 또 홀로 여행하며 겪은 에피소드 등을 다양한 사진과 함께 실었다. 윤 이사는 서문에서 "오래전부터 혼자서 훌훌 떠나는 '홀로 여행' 을 꿈꿔 왔지만 직장에 얽매다 보니 임무를 낼 수가 없었고, 직장을 마치고 곧바로 떠나려 다짐했지만 그 또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도 "힘들었지만 생애 가장 보람 있는 여행이었기에 여행을 꿈꾸면서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유여행을 하지 못한 시니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윤 이사는 광주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금호교육문화회관장을 끝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퇴직 후 혼자서 35일 동안 북유럽 5개국을 다니며 해당 지역의 자연과 함께 역사, 풍물 등을 함께 담



광주서창의 역사와 유래 등을 담은 책이 나왔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인문학총서 제1권 '광주서창' 을 최근 발간했다. 책에서는 서창 출신 가운데 유교로 의로움에 몸 바친 인물로 호남사림의 기반을 닦

인기코스인 개금산 백사산 송학산 팔학산 봉황산 사월산이라는 서구6산이 줄을 잇고 있다. 서창의 정자와 재가, 충효비와 정려, 송덕비 등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다. 서창에 알려진 설화로는 박광옥의 영특한 딸 '주역사' 를 비롯해 박상의 고양이를 낳아 한재를 극복하도록 큰 나눔을 실천한 사례이며, 현와 고광선과 같은 선비정신을 가진 이들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서창 주변에는 산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